

# 외환위기와 IMF체제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허 덕 연구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외환위기와 IMF체제에 따른 변화

**최** 근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는 아마도 환율과 IMF일 것이다. 이 둘 단어 사이에는 관련이 있다. 1997년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몰랐으나, 사실이 알려지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를 '외환위기'라 부른다.

최근 사료원료 도입이 불안정해지고 사료값이 크게 오른 것은 주로 외환위기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은행이자율 상승, 세수(稅收) 확대 등은 주로 IMF체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IMF는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해 가기 위해 수출, 저축, 조세는 늘리고 수입, 투자,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운용방향에 따라 양돈산업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2. 외환위기와 IMF체제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환율이 상승하자 사료가격이 지난 12월 한달 동안 무려 36%나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농민들이 사료를 2~3개월 외상으로 구입하여 왔으나 지금은 현금을 주어도 필요한 만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비육돈생산비 중에서 배합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2.7%(1996년, 축협중앙회)이므로, 사료가격 인상에 의해서만 비육돈 생산비가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산된다. 현금을 주지 않으면 사료를 사지 못하고, 축산기자재 가격, 동물약품 가격, 유류대 등 양돈에 필요불가결한 생산요소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양돈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3~5% 정도 추가되어, 환율상승에 의해 생산비가 전체적으로 23~24%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 이자율 상승, 각종 세율 인상 등은 IMF

체제와 관련된 현상이다. 생산비 중에서 차입금의 이자율 비중이 얼마되지 않아 생산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지만, 만일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온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철회될 경우 전체적인 생산비 증가율은 30%를 넘을 수도 있다. 경영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42%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IMF체제의 영향은 반드시 비판적인 영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고기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돼지고기 수출시장은 일본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내의 경제사정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환율상 승폭이 워낙 커서 수출에는 유리한 입장이다.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에 비해 수출가격면에서 유리해지고, 대만이 구제역의 악몽에서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금년도 돈육 수출량은 6만톤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고급육을 제외하고 돼지고기 수입은 크게 감소하여, 올해 수입량은 2만톤 정도 될 전망이다. 평균가격으로 보면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돈육가격보다 국내산 돈육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다.

IMF체제의 영향으로 시종경기가 냉각되어, 육류 소비는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육류들 간의 대체관계, 수입육과 국산육간의 가격차 정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 정도 때문에 추종별로는 어느 것이 줄고 늘어나는지 속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금년도의 양돈산업을 전망해 보았다.

〈표1〉 돼지 사육두수 변동과 전망(1990~1998)

구 분	1990	1996	1997 (잠정)	1998 (전망)	변화율(%)	
					97/96	98/97
사육두수(천두)	4,528	6,516	7,096	5,891~6,287	8.4	△17.0~ △11.4

〈표2〉 돼지고기 소비동향 및 전망(1990~1998)

단위 : 천톤

구 분	1990	1996	1997 (추정)	1998 (전망)	변화율(%)	
					97/96	98/97
국내산	502.2	655.0	676.6	623.2~637.8	3.3	△7.9~△5.7
수입	2.6	42.0	64.0	20.0	52.4	△68.8
계	504.8	696.9	740.6	643.2~657.8	6.6	△13.2~△11.2

〈표3〉 산지 돼지 가격 동향과 전망(1990~1998)

경상가격

구 분	1990	1996	1997 (잠정)	1998 (전망)	변화율(%)	
					97/96	98/97
산지(천원/100kg두)	164.4	171.0	174.3	187.0~192.0	1.9	7.3~ 10.2

### 3. 1998년도 양돈전망

생산비 압박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거나 이자부담이 많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돼지 사육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1996년에 비해 1997년에 사육두수가 8% 늘어났으나,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해 11~17% 줄어들 전망이다.

양축가들은 비육돈을 조기출하하고 모돈수를 줄여 사육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이러한 돼지들이 도축되어 공급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가격이 하락하지만, 국내산 돈육공급은 늘어난다. 그중 6만톤 정도를 수출한다고 보면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돼지고기 수입은 60% 정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돼지사육두수가 적정수준 이하로 감소하여 필요한 만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돼지가격은 7~10% 상승할 전망이다.

그런데, 1월 현재 산지돼지가격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궁금하다.

농가의 입장에서 사육두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100kg에서 출하하던 비육돈을 그 이하 체중에서 출하하고, 생산성이 낮은 모돈, 임신중이 아닌 모돈을 차례로 감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양돈은 연간 회전율이 2.2회전 정도이므로, 사육규모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시기를 11월 하순으로 가정하면, 조정이 거의 완료되는 시기는 4월 정도가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출하량이 많은 1월 정도까지 산지돼지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다가 2~3월은 보합세, 그 이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평균가격은 19만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변동폭이 커서 최하 13만원 최고 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육규모를 조정하는 기간인 2~3월까지의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 이후는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은 5~7% 내외로 오르고 생산비는 23~30% 정도 상승한다면,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양돈경영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 4. 정책과제

전망 결과, 과다한 조기출하는 가격폭락을 불러 일으켜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다시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전망을 농가의 사육안정을 위해 적극적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가들이 현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금사정이 좋지 못한 농가들이 출하시기를 조절하도록 경영비를 단기적으로라도 용자해 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사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발생한 최근의 경험으로, 사료의 원활한 공급의 중요성도 실감하였다. 미국 상품신용공사를 통한 외상구매(GSM-102)에 의해 사료원료 수급상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축협이나 농협에서 사료업체가 신용장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서라도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이 낮을 때 조속히 수매하고 높을 때 판매하는 수매 비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매비축제도는 가격 등락폭을 완화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사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발생한 최근의 경험으로, 사료의 원활한 공급의 중요성도 실감하였다. 미국 상품신용공사를 통한 외상구매(GSM-102)에 의해 사료원료 수급상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축협이나 농협에서 사료업

체가 신용장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서라도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봉책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사료원료의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사료원료의 공동구매를 유도하며, 사료산업의 구조도 조정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사료가격을 시급히 인하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양돈경영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각종 면세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때에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養豚**